3 - AUG - 9
Copy ____ 1960

시사만화잡지 **활살**

№5 (54) 1955.5

로력위훈 떨치며 온세계 근로자들과 함께!

최한진 그림

5·1절! 전후 두번째의 5·1절이 왔다. 굴뚝 마다 한아름씩 연기를 뿜는 공장에서 고층 건물 솟아 오르고 기중기 활개펴 허공 젓는 건설장에서 초록단장 버들가지 춘풍에 하늑이는 마을 마을에서 그리고 부서진 바위옆에 푸른 새싹 포근히 자란 방선에서도 5·1절! 근로자의 명절은 기쁨을 안고 찾아 들었다.

5·1절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이며 그의 조직된 전투적 력량을 검열하며 시위하는 날이다.

올해도 전 세계 근로자들은 보다 장성되고 강대해진 자기들의 전투력과 불패의 단결력을 자랑하며 시위한다. 전쟁을 반대하여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마치와 낫,붓을 들고 이러선 수억만 근로자들의 위력을 시위하고 있다.

조선사람은 미제 전쟁상인들을 쳐부시고 그 기세에 힘 도꾸어 120개의 대, 중공업기업소 공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복구건설 하고 40여개의 대, 중공업 기업소공장을 신설하여 놓고서 이날을 맞는다.

억센 기개와 뜨거운 심장은 고동쳐 조선사람의 가슴 가슴 마다를 부풀어 오르게 하며 조선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두레에 뭉친 강철의 대오의 무적의 힘을 자랑케 한다.

5·1절은 근로자의 명절이다. 제국주의 침략과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근로자들의 기치가 온 지구위에 휘날리는 날이다.

조선사람들은 자기나라의 남쪽 절반땅을 강점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을 완수하기 위한 불요 불굴의 투지를 가다듬으며 이날을 맞는다. 전쟁의 불씨를 뿌리며 억압과 착취의 멍에를 휘두르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끝끝내 쳐부시고 남반부 근로자들을 자유스럽고 행복한 조국의 품안에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5·1절은 근로자들의 국제적 친선단결을 강화하는 날이다. 조선사람들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까부셨으며 전후 복구건설에서도 위력을 떨침이 쏘련을 위시한 국제 민주진영 및 전 세계 근로자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단결이 있기로써 가능함을 가슴 깊이 간직한다. 『레닌과 쓰딸린의 필승불패의 기치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가 온세계 위에 더욱 높이 휘날리라』는 수령의 교시를 마음 합쳐 웨친다.

5·1절은 봄날의 명절이다. 움터오른 새것이 온 누리를 뒤덮고 낡고 루추하고 구역나는 모든것이 타기되는 봄날의 명절이다. 근로자들은 이날을 맞을때 마다 잡통냄새 풍기는 낡고 부패한 자본주의 사상잔재를 발밑에 깔아엎으며 생기발발하고 약동하는 새사상—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더욱 무장 된다.

조선사람들은 올해의 봄 명절을 맞으며 관료주의 형식주의 멩동주의 종파주의 탐오 랑비 등등 이 땅을 더럽히는 온갖 유물들을 더한층 깨끗이 깔아엎는다.

오직 승리바께 모르는 우렁찬 전진이 자기의 결함에 대한 엄혹한 비판에서 보장된다고 깊이 깊이 인식한다.

5·1절! 조선인민에게 있어 이날은 8·15해방과 련계된다. 봄날의 명절 5·1에 꽃 핀 조선 근로자들의 증산투쟁은 전세계 근로자들의 사회주의 조국—쏘련에 의하여 자기들이 해방된 8·15에 이르러 열매 맺는다. 올해도 조선 근로자들은 5·1의 증산을 8·15 10주년 증산에로 이끌며 나아간다.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최한진 그림

공화국 북반부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창의에 의하여 이룩된 인민정권 아래에서 새로운 력사를 창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직접 정권기관 사업에 참가하여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보람 찬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 역도의 테로통치 하에서 마지막 고혈의 한 방울까지 착취 당 하고 있는 남반부 로동자들은 굴욕과 압박과 기아와 질병에 빠져있다.

북반부 로동자들은 공장 기업소의 주인공이 되여 자기 손으로 인민경제를 건설 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1·4분기 계획을 완수 하고 2·4분기 계획을 넘쳐 실행 하기 위해 더욱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는 공장이 폐쇄 되고 생산은 축소 되고 물가는 폭등 되고있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에게 극도로 착취 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들은 거리에 내 쫓기여 실업과 빈궁과 죽엄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북반부 로동자들은 고귀한 로동의 영예를 지니고 증산경쟁의 불길을 높이어 조국통일의 혁명원천지 민주기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있으며 궁지감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 로동자들은 일할래야 일 할 곳이 없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포밥으로 강제 징모 당하고있다.

공화국 북반부와 남반부의 로동자들이 어째서 이같은 판이한 두 세계에 살게 되였는가? 그것은 남조선을 미제와, 리승만역도들이 강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로된 보따리

그가 육잡한 『보따리』를 둘러메채로 고무산역에 내린것은 바로 1년전 일이다. 그는 역전에서 고무산 세멘트공장 계획부장 장호림의 영접을 받았다. 그에게는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는 계획부장이 제일 첫눈에 들었다. 이튿날 그는 고무산 세멘트공장 지배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직명으로 일장의 부임연설을 하였다.

『전체 종업원동무들! 지금 건설장들에서는 세멘트를 몹시 기다리고있소 동무들! 돌격작업으로 공장 복구 공사를 2개월간 단축합시다. 이는 조국의 명령이며 나의 명령이라는것을 알아야하오!』

복구공사는 명령에 의하여 바로 명령대로 진행되여 갔다. 어쨌던 조업식은 지냈다. 그러나 생산은 명령대로 순순히 풀려나가지 않았다. 원래 혹심하게 파괴된 시설들을 억지공사로 복구해놓은지라 기계고장은 빈번하였고 계속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했다. 사정이 딱해서 분쇄직공장 김장준동무를 비롯한 혁신로동자들은 십여차례에 걸쳐 보수자재를 해결해줄것을 요구해 나섰다. 이때에 지배인은 결심을 채택했다. 『퇴각은 금물이다. 더 강한 명령이 있을 따름이다』라고……

『동무들은 전후 생산사업을 그저 식은 죽 먹기로 생각하오? 그런 애로쯤 무슨 재간으로라도 해결 못하고서야 어찌 생산을 보장하겠소?! 애국자가 되려거든 생명을 바쳐서라도 생산을 내란말이요』 이러한 고함소리가 자주 울리게 되였다.

그래도 딱해하면 『생산은 전투요! 지배인의 명령은 전투 명령이요 군말말고 나가 일하시요』 지배인은 악을쓰며 책상을 두드렸다. 지배인 차승철은 할일없이 군으로 도로 오르나리기에 배우 바빴다. 무슨 용무인지는 알길없었으나 한달이면 4—5차는 틀림없었다. 그때마다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 다. 그는 작년 겨울 어느날 무슨 『신통한』 생각을 했던지 기사장과 계획부장을 급히 불러댔다.

『성에다 긴급전보를 치시요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년간계획 100,3%로 초과완수」 이렇게…… 그리고 선진기업소의 「명예」를 고수하기위하여 년말 생산보고도 적당히 조절하시요. 생산은 계속될거니까……』

계획부장은 영문을몰라 반문했다.

『아니? 년간계획 달성은 아직멀었는데요』

『어째 그리 벽창호요. 보고해놓고는 생산못한단 말이요』 지배인은 답답하다는듯이 꾸짖었다. 비로소 지배인의 속심을 알아채린 계획부장은 『네! 네!』 하고 얼뜬 대답을 남겨놓고는 주먹을 불으쥐고 우편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는 4,601톤을 더 첨가하여 엄청난 허위 숫자로 년말생산보고를 끝냈다. 새해가되자 성 관리국에서는 많은 상금과 상품을 보냈다. 지배인 차승철은 개선장군처럼 기뻐날뛰면서 그날 밤이 짙도록 몇명의 심복들을 다리고 축배를들었다.

그러나 지배인의 기쁨은 「일장춘몽」이되고 말았다. 생산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만것이다.

『스라크를 쉬소。스라크를……』

당황한 지배인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워낙 크링카에 20%씩 쉬어야할 스라크를 200%씩 쉬었다. 생산된 제품은 세멘트가 아니라 스라크만 산뗌이를 이루었다……또한 강다짐으로 혹사한 함마구랏샤는 헐덕이고 동체는 우그러지고 다이야는 다섯군데나 터졌다. 한달동안 생산을 멈추고 기계를 대 보수 하지않으면 안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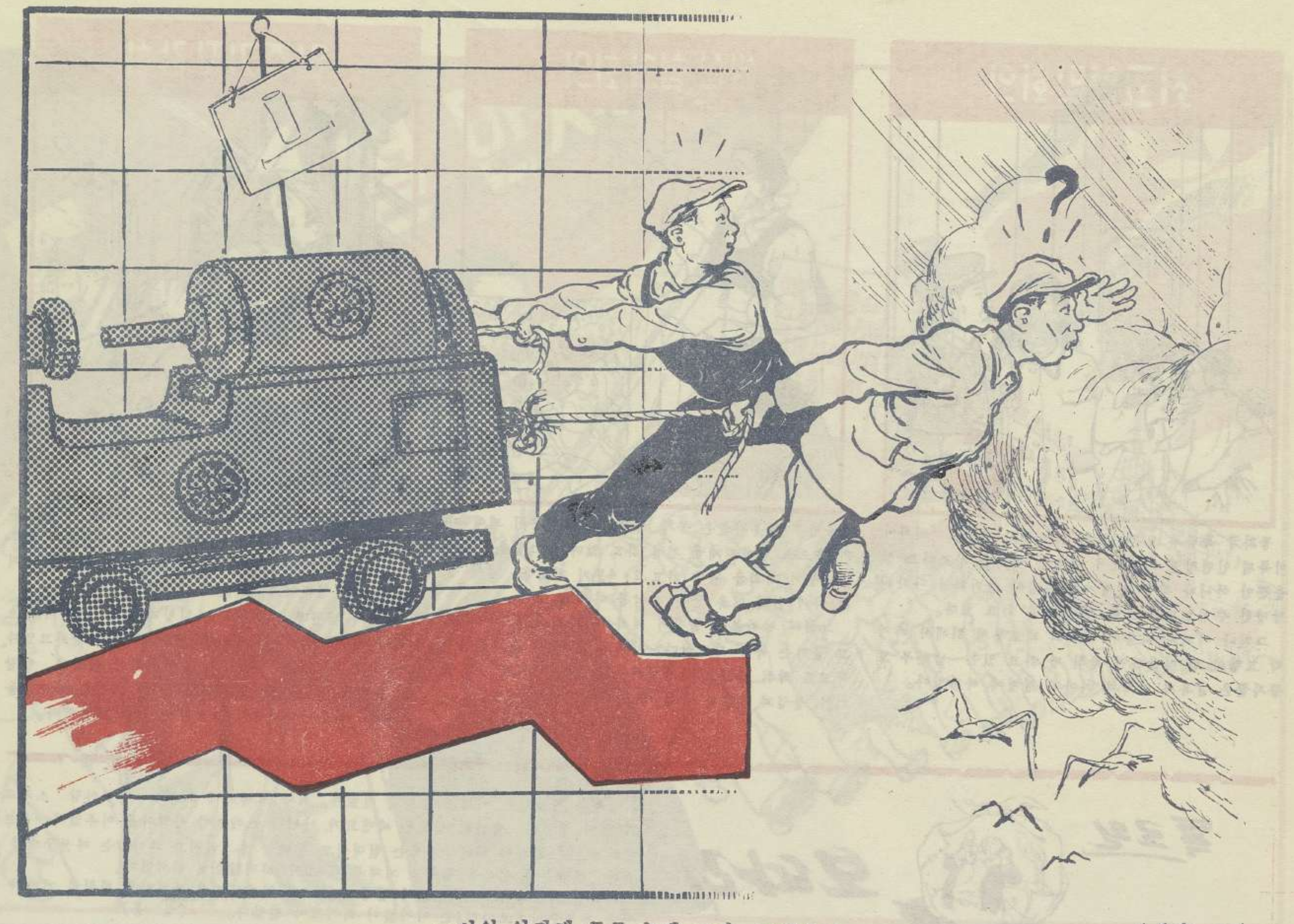
지배인 차승철은 그만 눈앞이 캄캄했다. 그가 일제에게서 물려받은 허위와 기만과 무서운 관료주의 『보따리』는 여지없이 터지고야 말았다. (석 봉)

이 친구는 언제 까지나 뻗칠 것인가?

일부 일군들은 인민들의 신소와 청원을 제때에 옳게 해결할 대신에 관료주의 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백인균 그림

구름에 둥둥



—아이 앗질해 동무 눈엔 그래 뭣이뵈나
—오리 무중일세

리영춘 그림

남포 용구 공장 일부 일군들은 증산 경쟁의 정치적 의의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경쟁 체결을 하였다. 그들은 경쟁 체결의 의무조항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중속에 조직침투시켜지 않고 막 내밀고있다.

말못하는 기대는 애닮아 한다

한장의 소환장이

큰 일을 저질렀소

일부 직장 간부들은 "기술이 모든것을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친지관계 동창관계 고향관계 등에 사로 잡혀 기술자를 엉뚱한 곳에 빼돌리기도 하며 기술이 없는자를 기술자 자리에 올려 놓기도 하는 경향이 존속되고 있다.

최영근 그림

『한번 공명을 떨쳐야 하겠는데… 문제는 생산이 다!』

자강도 성간 림산사업소 기사장 백근회동무는 머리를 붓잡고 골돌히 생각한다. 얼마후 그는 벌떡 일어났다.

『선진기술도입! 하루 한사람이 10립방 운반하던 것을 30립방씩 운반한다!

300%의 능률이군! 당장 간이삭도를 설치해야지… 그리고 목궤도도…』

백근회동무는 림업국에서 내려온 서류를 다급히 뒤적이며 련상 300% 능률을 꿈 꾼다.

『「알까기전에 병아리 세지말라」는 속담은 들었는지? 말었는지?』

× × ×

그 이튿날 백근회동무는 생산협의회를열고 간이삭도와 목궤도를 설치할 것을 주장 했다. 로동자들은 대단히 기뻐했다.

『기사장동무! 빨리 추진합시다. 그런데 먼저 다른 기업소들에서 실시한 것을 견학하는 것이 어떨까요? 난생 처음 해 보는 일인데 실수 없어야죠』

『언제 견학을… 그럴 시간이 없소. 빨리 생산을 보장해야지… 오늘부터 착수합시다』

기사장의 강력한 집행에 간이 삭도는 급속히 설치되여 갔다. 목궤도 공사도 뒤를 따랐다.

황야, 창평, 농동, 세 작업소가 보다 지리적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봉우리에서 아래까지 일률적으로 지주를 세웠다.

백근회동무는 신바람이 났다. 그는 시운전을 하는 날 자기가 직접 삭도에 나무를 운반께 했다.

『이거 웬 일이야? 모다 중턱에 걸렸서… 꼼짝 안하는군…』

간이삭도는 위선 장소를 잘못 정했다. 또한 지형과 경사에 따라 나무가 내벼가겠금 지주를 세우지 않고 모다 한판에 박은듯 세웠기 때문에 삭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많은 국가재산을 허비하고 한달 동안이나 씩씩거리고 만든걸… 다 뜯어 다른 곳에 옮긴담…』백근회동무는 머리를 붓잡고 주저앉으며 한숨쉰다.

『참「덮어놓고 열닷량금」이란 속담 그른데 없어!』

× × ×

『어떻게 한탐 빨리 생산을 보장해야 할텐데… 문제는 돌격이다! 돌격!』

백근회동무는 높이 웨쳤다. 그의 돌격 구령에 아름드리 나무가 이 산 저 산에서 텅 텅 넘어진다. 눈이 핑핑 돌아갈 지경으로 벌근고를 무시하며 닥치는대로 나무를 찍어없는다.

그동안 로동자들은 간이삭도와 목궤도에 대해 더 추진 시킬것을 제기했다.

『간이삭도? 말만 들어도 입에 신물이 돋소… 그리고 그까짓 목궤도도 중지하고 그로력을 생산에 돌립시다』

『그럼 선진기술을 반대한단 말이요?』

『그만 두, 한번 혼 났으면 됐지, 두번 혼 나겠소? 평 잡는게 매라구 생산만 하면 될게 아니우』

백근회동무의「눈부신」사업집행에 산림경영소에서는 눈을 휘둥구리고 달려왔다.—도남벌 2,313본, 벌근고위반, 9,380본, 위약금 180만원—

이렇다보니 1,4분기 계획은 79%의 탁후한 숫자로 머물었다.

개별계약을 체결한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기업소들에서는

—위약금 67만원—을 청구해 온다.

『아이구! 이걸 어쩌나?』

백근회동무는 또 머리를 붓잡고 주저앉았다. 그는『생산! 생산!』하고 목이 빠지게 공명심에 사로잡혀 웨쳤으나 결국은 모래위에 집을지은 속담 그대로

—류 달—

무엇? 3,000명!

—야단 났습니다……현장 지도원 동무, 3,000명이나 동원되어 왔어……
—무엇? 3,000명! 삽 세자루바께 없는데……어쩐담……

송응남 그림

일부 건설 트레스트 일군들은 로력조직에 있어서 아직 주먹구구식 사업 작풍이 남아 있어 귀중한 로력을 랑비하는 엄중한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무원칙하게 뇌물을 받아 먹으며 재정규률을 위반하며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는 간상배들에게 리용 당할 뿐만 아니라 간첩에게도 리용 당한다.

리기주의자의 종말

—요즘이야!……하고 상인의 뇌물을 받아서

마음을 턱 놓고 들이키다가 귀중한 문건까지 가로채여

다 들어난 약점이라 감출길 없어

굴레쓴 망아지가 되여 드디어 패가 망신……

박승히 그림

「좋은 성적으로!」

◇ 군 에 서

새로운 5일간 보고제는 영농준비사업에서 활기를 띠게 하였다。

평남도 인민위원회 농산부와 각 군 인민위원회 전화통은 불이 나게 쪼르릉 거리였다。그러나 쉴 사이없이 오고 가는 말들 가운데는 가끔 헛소리가 섞이였다。

도 인민위원회의 바로 아래에 있는 순안군에서는 한번도 정확한 보고를 해본 일이 없다。

4월 7일만 하드래도 23개리 보고가 33개리의 보고로 늘어 났다。

『요지음 때가 때지라 도에서 알면 좋지 않잖소?』

통계원은 량심의 가책을 받는것 같았다。 그러나 부장은 태연히 대답하였다。

『말 마시요 숯이 검정 나무랜다고 3월 25일만 하드래도 도에서는 우리군 개인 영농준비 진행정형을 사실보다 더 첨가하여 상부에다 보고한 일이 있지 않소?』

◇ 리 에 서

중화군 인민위원회에서는 영농준비의 지도를 위하여 김병탁동무를 금산리에 내려 보냈다。

그는 금산리에 도착하자 아주 편한 딴 세상을 벌여 놓았다.

출퇴근 시간은 꿈도 안뀌고 아침이면 해가 똥무니에 땋아야 일어 났다。

첫날에는 십리길을 걸어오느라고 고닮아서… 다음날에는 리 실정을 좀 알아봐야겠다고… 세번째날은 그 동안에 할 사업 내용을 연구한다고… 계속 방안에 들어 앉아 있었다。

하루는 농민들로 부터 보리 야로비자찌야를 실시 하겠는데 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내야 그런 기술저 문제를 어디 알우』

『그래도 농산 지도를 나오지 않았소?』

『그야 그렇지요』

그후도 파종사업에는 아예 참견할 념도 하지 않고 방안에서만 빈둥 거렸다。

『지도를 나온게 아니라 휴양을 나왔군』

농민들은 수근 거렸다。

3월중순 군에서 벼락지시가 내려왔다。

당장 자급비료 확보량을 보고 하라는 것이 였다。

김선옥 리 서기장은 반장들을 불렀다。

『한집에 몇 달구지나 될까요?』

『아마 !…일여덟 달구지야 되겠지요』

『그 중에도 많은 집이 있지 않겠소?』

몇 제일 많은 집의것이 산판위에 올랐다。쪼개고 승하고 나니 총호수 115호에 4,850톤이 나왔다。

『그쯤이면 비슷할것 같소』

위원장은 한결 『공명주의』『허위보고』란 방맹이가 앞가슴을 두다리는것 같아서 중얼 거리였다。

『요지음에 이래서 일 없을까?』

서기장은 인차 대꾸했다。

『보리, 밀, 감자 야로비자찌야에 대해서 전군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농산부 에서는 1개리의 것만 알고 그것을 5,6월 엿가락처럼 쭉 늘구어 도에 보고 했습니다。그리고 군에서 내려 보낸 동무만 보더라도…』

『참 그 동무를 휴양하러 왔다구들 하던군』

『군에서도 그런데 무에라 하겠소?』

『하긴 그래 보고해 뿌리소』

보고는 「좋은 성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성에서 자급비료 실적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한 결과 군에서 리에서 형식주의와 공명심에 물젖어 『이쯤이야』하고 같은 솜씨로 오고간 보고서는 락후한 성적으로 애꾸진 전화통만 고달프게 하였다。

(장 필 순)

『신선 노름』

일부 농산 지도 일군들은 이앙 사업에 대하여 지방실정에 적응한 지도를 할 대신 사무실에 틀을 차리고 앉아 통계를 수집하거나 실적 비률만 따지며 태연하게 책상 앞에서 이앙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여보…… 여보……

아직도 시기가 이른 모양이군

최 한 진 그 림

수의들의 끝없는 끈쓸딴뜨

—답답해라! 병은 간단한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기만 하는군……

최 영 근 그 림

평강 목장에서는 돼지들이 병 들었다。 수의들은 서로 큰 연구나 하듯 머리를 싸매고 돈폐염, 하병증, 돈염, 돈페스트라고 옥신거리기만 하여 폐사률을 높이고 있다。

행복을 창조 한다

—옥분이의 저 열성엔 누구나 감복 안할수 없거든!

—나무 좀 거들어 드릴까요?

—흥! 남의 일 걱정말고 제코나 씻을게지……

—옥분이의 한결같은 열성에 더욱 고무된 그날부터…

—이진 참 우리들이 땀 흘린 결실 입니다!

—그러문요! 우리의 행복은 자신이 창조 해야죠

안 경 수 그 림

황해북도내 일부 소비조합 지도 일꾼들은 상품의 합리적 배정과 군 및 상점 호상간의 상품 교류 조작사업을 책임성 있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없습니다……

고무신을 사지 않으려우?……

—미안합니다……

면직물을 사시지 않으려우?…

송 용 남 그 림

잃어진 환상

미국의 선전가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들자 곧 그들의 목 소리에는 감격의 눈물과 환희의 고동이 어리였다。

주간 보도"월드 뉴—쓰"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막첼 주식 회사" 사장은 상업계의 활동가로서 아주 실무적인 정신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연설 하였다。

—미국 민주주의 표상에는 두가지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그는 말하였다— 이것은 첫째로 가난뱅이들 중에서 널리 퍼져있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있나하는 환상이고 둘째로는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발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돈 많은 사람들중에서 성장되고 있는 공포인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첼씨는 절대적으로 옳게 지적 했다。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는 여기서 자신이 환상에로 빠졌다。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환상은 이미 오래 전에 잃어지지 않았는가。

끄로꼬질 8호에서

(한 동 신 역)

전 세계 근로자들의 단결된 전투적 력량을 검열 시위하는 국제적 명절인 5.1절 만세!

찬란한 증산의 조명 속에서

빛나는 5•1절의 증산 성과를 !

8•15해방 10주년에 더욱 찬란하게 !

안창수 그림

만풍의 소원을 푸렀다

송용남 그림

웅대한 평남 관개공사는 4월 24일에 제1계단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의 시설은 조선에서 제일크고 동양에서도 그 규모가 크기로 손 꼽힌다。

—어제는 햇볕에 탄 건조한 땅이였는데
오늘은 생명수가 흘러 대지는 약동한다!

백전 백승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들자 !

국제유모어

Szpilki - 슈피리키

파란 풍자만화 잡지「슈피리키」 1955. 14호에서 전재
화가 까로이페르스페르

덜레스—우리는 다만 파괴 또 파괴를 희망 하였다

범죄와 처벌

고문실에서
　야수적인 채찍질로써
아이들과 녀자들을
　죽엄의 운명에 몰아넌 그들은
뉴—른베르그의 하늘 아래서
공훈있는 말로를 얻었었지
　원자탄으로 하여금
수입의 최대한의
　리윤을 얻으려는 그 자는
바로 이" 높은 관직"에 대한
　후보자로 되고야 말리

에쓰•마르샤크

※ ※ ※

우리들이 찾은 곳이나
　우리들이 없는 곳이나—
가는 곳 마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이 있다
우리는 평화를 애원 하지않고
　념원하노라
인민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우리들은
　세상에서 모든것의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최선의 의지를
　달성 하리라
자기 아들의 운명에 대하여
　어떤 곳에서도
　　어머니들이 울지 않도록!

레호•오샤닌

고로꼬질 8호 에서 (한둥신 역)

Urzica - 울지까

루마니아 풍자만화잡지「울지까」 1955. 2호에서 전재
"얌전한" 처녀

"얌전한" 처녀

DIKOBRAZ - 지고부라즈

체코슬로바키아. 풍자 만화잡지.「지고부라즈」 1955. 9호 에서 전재 예•뽀뻬 그림

파리의 손톱 닦기 쟁이

Roháč - 로가취

체코슬로바키아. 풍자 만화잡지.「로가취」1952. 38호 에서 전재 힙달•와이즈고프 그림

명백한 걸음으로

만평

코막고 답답해라

사리원 농민 시장 부근에서……아치는 널판자가 찌그러지고 떨어져 뼈다귀가 앙상해 답답해 하고 농민시장의 스피카는 벙어리 노릇 할때게 답답해 하고 가두선전판의 종이쪼각은 물이 남아 답답해 하고 하수도는 오물이 차 답답해 하고……그보다 답답하긴 농민시장 일부 관리 일군들이 『도시미화』라고 뱀도리치는 일…

기림리 뻐스정류장에선 『신사』들이 앞뒤 사람의 구두 밟는게 제일 답답하고 기림리 거리 룩지 풀싹은 그 신사들에게 밟히어 답답 하고 그 보다 답답하긴 이 『신사』의 하등의 가책도 받지않는일…….

신발 젖는 것만 아는 지배인

—야단 났다 비에 신발이 젖는구나

리영춘 그림

신의주 제지 공장에서는 설치해야할 귀중한 기자재들을 설-치 하지않고 그나마 우기대책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굴러 놓았기 때문에 국가에 큰 손해를 주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이러한 현상이있다. 동사무소는 앞마당에 돼지우리가 가로 막혀 답답하고 젖배 부른 새끼돼지들은 동사무소에 들어가고 싶어 답답하고 어미돼지는 큰 소리로 새끼 불을때게 답답하고 동 사무소 게시판은 『춘기방역』 『시내 가축 사양금지』 표어 뜯어 뿌리지 못해 답답하고 그 보담도 답답하긴 말만 하는 친구들이 더 답답 한일…….

로동을 싫어 하는자에겐 놀구싶어 답답하고 학교에서 돌아온 딸에겐 앓는양 들어 핵힌 아버지가 답답하고 책상 밑에 숨겨진 술병은 또 약병짝에 끼울까봐 답답하고 그 보담도 답답 하긴 로동을 싫어 하는 자의 골속을 빨리 가라 넣지 못하는일…….

동평양 종합 진료소 의사 리종수는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당끌식당에 못가 답답해 하고 산모들은 리종수 의사가 당번 될까봐 답답해 하고 리종수 의사 가방은 술 맛 보면 녹초돼야마는 그 주인을 답답해 하고 간호원들은 리종수 의사 때문에 답답해 하고 그 보담도 답답하긴 리종수 몸에 걸렸던 위생복의 하소연소리…….

최한진 그림
송용남 그림

기본 건설에서 랑비 현상을 퇴치 하라!

설계도를 봐야 일하지 ………

설계도 재촉은 심한데……수정 ……수정 ……오늘도 수정 ……

수정 끝에 만들어진 설계도는 폰트 예산에 맞지 않는다고 …… 또 수정하다 보니…

준공일이 지나가고 새로운 기지 공사를 요했다

리영근 그림

통절히 느껴지는 대중 교양

회천군 정평 아랫골에서는 회천 산림 경영소 김일수 동무의 지도하에 민청원들이 식수사업에 동원 되였다。

그런데 일부 동무들 가운데는 심으라고 한 가래나무씨를 돌 우에 놓고 깨여 알을 골라서는 입에 넣어 먹기 시작하였다。

『깨소금이 이 보다 더 고소할까?』

『동무들 한두개 맛보았거던 심어 봅시다』

김일수 동무의 말이 였다。

『흥 언제 이 나무 그늘 덕을 보겠다고—나중에 꿀 한식기 먹으며고 당장 엿한가락 안먹을까?』

『뱃속에 들어가던 땅속에 들어가던 가래 껍대기가 묻히기만하면 된단 말이요』

이렇게 가래나무 씨를 400 여개나 깨여 먹어 버리였다。

그들은 「오리」에 한개 「십리」에 한개씩 드문 드문 심었다。 그래도 부족되여 나중에는 그냥 흙만 덮었다。

이래도 김일수동무와 정편 아랫곬 일부 일군 들은 조국의 산파 들을 푸른 락원으로 만드는 식수 사업을 『성과적』으로 지도 했다고…

원광수 삽화

염통 곪기는줄 왜 모르오

길고 짧고 두텁고 엷고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된 4천개의 보섭은 단천종합 공장 마당에 쭉 렬을 지었다。 1,4분기 생산을 완수한 지배인 최인선동무는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생산 지도원은 가슴이 섬짓 했다。

『보섭들이 규격이 일정치 않아서…』

『보섭은 발가리철만 지나면 무용지물이요 그러니 「규격 규격」하고 때를 놓치는것 보다는 다소 규격이 맞지 않더라도 빨리 만들어 보내는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는 기쁜 일 이요』

4천개의 보섭은 곧 산간 지대로 배당 되였다。

그러나 정 2월도 다 가고 3월이 지나 보섭은 산간지대를 싫전 유람만 하고 주인을 찾아 되돌아 왔다。

『허… 거젠 보섭이 남아 도는 모양 이로군…』

『지배인동무! 아니올시다 남아서 돌아온게 아니라 보섭이 얇고 짧아서 쓸수가 없대요』

생산 지도원은 울상을 했다。

『걱정마오 산간지대는 땅이 굳어서 쓸수 없으나 옥토지대는 땅이 문문해 그 보섭이 꼭 알맞을게야 그렇지 안어?』

지배인은 다시 돌아온 보섭을 영흥군으로 몰아냈다。

『전경 심경으로 발가리해야 할텐데… 대체 이따위 보섭을…』 영흥군에서 또한 거절되여 둘째번 공걸음을 하고 또 되 돌아 왔다。

『할수없지… 첫번 실패는 다음의 성공이니까…』 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길고 짧고 엷고 삐뚜러진 보섭은 싫건 며비만쓰고 지배인의 세번째 『배며』에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면서 마침내 다시 불속에 들어갔다。 그래로 지배인은 태연 자약 했다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일인가?

기 쁨

활살을 잔뜩 물러메고 지난 11월에 기양기계 건설트레스트를 찾아가 『대중 정치사업은 어데로?』 하고 욕도 좀 했건만 훈훈한 5월 바람 쏘이며 다시 가본즉 대중 정치 사업은 많은 개진을 가져 왔다는 기쁜 현상을 보게 되였다。

4월에는 벌서 130,1%! 계획넘쳐 전설했다고 가슴펼친 그 모습。 귀담아 들기에 더욱 오수근 동무의 본신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걷우었으며 정치 학습에도 힘 쓴다고!.

알리는 말씀

장엄한 창조적 로력 투쟁속에서 맞이하는 우리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8.15해방 10주년에 제하여 본사에서는 특집호를 발간 합니다。

성대한 이날에 바치는 특집호를 더욱 다채롭게 편집하기 위해 독자 여러 동무들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써 만화나 혹은 유모적인 글.만문.펠레똔 등으로 열렬히 투고 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1.
(ㄱ)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장엄한 투쟁
(ㄴ) 민주력량의 장성! 10년간의 찬란한 성과
2.
(ㄱ) 반관료,반탐오 에 대한 여러가지 현상들
(ㄴ) 절약에서 얻은 성과와 랑비로써 국가에 준 손실.
3.
(ㄱ) 국제, 국내, 시사에 관한것。

※—이상의 원고들은 이미 발표되지 않는 것으로 인민들 생활가운데서 벌어진 자기 지방의 구체적인 사실을 취재하여 창작하심을 바랍니다—

편집부

다 틀렸다

백악관 주인놈의 계속 발작하는 전쟁 히스테리적 소동과 때를같이 하여 값싼 비용으로 남조선 청년들을 대포 밥으로 대량 충당하기 위해 소위 한국에서 5월중으로 2개사단의 편성을 끝마치었다고 리승만 괴뢰「국방」부는 전하고 있다。그러나 남조선 청년들은 역도들의 폭압과 강제 징병을 반대하여 분연 궐기하여 투쟁하고 있다。

— 아이고 배가 고프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남한 청년을 동원 시키란 말이야

— 예 그저 무기만 주십소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20개 사단쯤이야 별례 마십쇼 우리군대는 값이 눅어 미군 한명 값이면 25명을 충당시킬수 있죠 혯 혯 혯……

—아이고……………
—음……………

리일춘 그림

버릇사나운 개 콧등 성할날 없다

—아이구…죽겠다 이놈들에겐 아직 미국식 교육이 부족했구나

박승히 그림

리승만 괴뢰 도당들은「강제 징모」를 반대하여 치렬히 투쟁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병역 기피자는 최고형으로 처단한다」는 포악 무도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질곡의 남조선을 탈출하여 입북한 청년학생을 보호할데 대한 내각 결정 제40호를 채택하였다。

사실은 폭로 한다!

알맹이까지 글거 략탈

총칼을 들어 닥치는 대로 학살

앉아서 죽느니 일떠서 싸우자고 인민들은 궐기한다

미국제 살인 무기로『원조』라고…

두손들어『살인마』를 보호

거센 인민의 목소리 앞에

백인균 그림

—애리스의 넋두리—

청심환인들 어찌하리……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한 아부지시여! 이 일을어찌하란말입니까? 아 글쎄 리승만을 어떻게해야 위로한단 말이요? 10년간 백발이 성성해서 해놓았다는 것이 하나도 옳게 못되여 들리는건 죽으라 썩어지라 뒨 욕뿐이요 드나드는 놈들도 물어뜯질 못해서 곤당질이요 액여길은 병정도 제깍하면『의거입북』이니 리승만이 신세처럼 스산한게 어데있으며 애리스의 심정같이 침통한게 어데있겠소 더우기 요사이는 리승만이 앉은자리 바늘 방석이요 어지럽고 께우러져 말이 아니라오 북에선 복구건설 거가 막히고 남쪽에선 거지떼 길이 메구요 가마귀만 시체보구 까우먹시니 가슴땅만 어를택혀 요절하겠구려! 새 국회는 젊은게라 장담하더니 예산안을 내놓고 토의시키니 협잡한걸 따지고 달라붙고요 둘러댈줄 모르는 재정장관은 쩔쩔매며 말막혀 대답하기를『미안하게 되였소』『나는 잘 모르겠소』이럴뿐이니 이러단 아주 싹 밑이 뭍어나 우리 령감 리승만의 머록코등에 똥칠만 가득히 도하겠구려! 리승만도 이제는 미욱만 남아『대답은 못해도 리해하라』고 국회의원놈들을 욱밖기만하니 하나도 순순히 일은 안되고 백성들은 떠들석 욕을 퍼부며『망국예산』이다『황천가는 엽전』이다 비웃어대니 아이구 딱해서 정말 죽어요! 학생놈을 조갈하듯 병정 보내니 미국의 대포밥이 되지않겠다고 들고 일어나 이제는 본갓집도 혼자 못가고 어느벼락에 송장 칠는지 가슴 울렁써 요지음은 우유 먹어두 쎄기기 가뿌다오 80넘은 늙은걸 부둥켜안고 아양을 털었댔자 무슨 반응 있겠소。

영.미 식 본을 따 주말려행랍시고 진해에도 종종 끌고 가지만 남해바다 물결이 눈에 띄우면 리승만은 털서덕 주저앉아서 제홍문이 전사도 영 못하오 5년전에『북진』을 개시했다가 인민군대 벼락같이 반격하는 통에 남해바다 물귀신을 간신히 면한 리승만의 어혈이 쉬이 났겠소。

명산구경이 어떨가 생각되여서 산엘 가자 한두번 졸라봤지만 산 소리만 들으면 아주 까무라져 황천갔다 오기가 일수랍니다。산마다 산사람 (빨찌산)이 끓치질않아 10년두고 경쳐오는 리승만치고 조상 뫼자리 바꾸려고 왜 아니하겠소。

아무래도 경무대 집이 제일 같애서 잠옷 입혀 가만히 눕이어두면 찌르릉 전화소리 번질어나고 수화기를 들면은 정해둔것이『하로!』하군 욕설이 묵사발이요『각하?』하군 껭껭우는 호소뿐이다 내버려두면 리승만이 미치겠구요 앞뒤마춰 때자니 내가마르오 리승만일 의로할 길이 내자는 아득해서 알수없어요 한의가 좋다기에 물어본즉은 청심환이 어떨가 고개 꺄우나 아이구 하느님 아부지시여! 그까짓 청심환인들 어찌 하리요 세상에서 못된 병이 골수에 잠겼구려……

(백 우)

원자전쟁을 반대한다!

사라져라 (IKE) 악귀

아세아 및 아프리카 14억 4천만 인민들은 자기의 뼈저린 경험을 통하여 미제의 『경제원조』나 『호상안전』이 무엇을 목적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장진광 그림

화 근

백년도 못되여 3차나 불란서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킨 자는 바로 독일 군국주의 자들이다。

1870년의 피스마르크

1914년의 카이제루

1940년의 힛틀러

장진광 그림

후과는 명백 하다

쏘•불, 쏘•영 조약의 배신자들은 범죄적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장진광 그림

구라파와 미국 제국에서는 4월 1일을 『4월의 명텅구리 날』이라하여 샛밝간 거짓말로써 사람들을 서로 우롱하는 것을 한개 전통적 습관으로하고 있다。 작년 『4월의 명텅구리 날』에는 영국 비•비•씨 방송이 엉터리없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금년 『4월의 명텅구리 날』에는 일본 도꾜에서 발간되는 미국화한 영문 신문 『니뽕 타임스』가 『쏘련의 젯트 폭격기가 일본에 불시 착륙』하였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또한 일대 소란을 일으키게 하였었다。

만약 뉴욕의 어느한 신문이 『4월의 명텅구리 날』에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국무장관 덜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였다』고 보도 하였다고 하면 어떤 반향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이에는 미국의 경신자들도 그렇게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앙그로 삭손 민족에게만 특수한 능력을 주어 기타의 누런 또는 검은 인종들은 모두 그 앞에 굴종하게만 되여 있어야할 것인데 요지음의 형편을 보면 일이 반드시 그렇게는 되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가 달라 짐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이 『잠든 사자』라고 비웃으며 손발을 꽁꽁 동여 매 두었다고 생각하면 중국이 일어 났으며 갓 쓰고 당나귀 타고만 단이는 줄 알았던 조선 인민에게. 또 잘 보면 월남 인민에게 수없이 폭탄을 퍼붓어 보았지만 독립을 위하여 일어나는 그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력사적 교훈이 있는 바와같이 인도와 비르마 인도네시아 등이 식민지 노예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것도 가로 막을 길이 없었다。 아세아에는 민족해방의 새시대가 시작되였으며 『암흑대륙』으로 불리우던 아프리카에도 동은 트기 시작 했다。

4월18일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제국가 대표들은 며는 미국의 낯색을 살피거나 의사를 물어 볼것도 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인도네시야의 반뚱에 모여 자기들의 공통된 문제들을 토의하게 되였다。

태평양을 자기의 물안 곳으로 생각하며 대만과 조선과 월남에 자기의 국방 제1선이 있다고 하여 마치도 조선 사람이 조선을 침략 하였다。 중국 사람이 대만을 침략 하련다 월남 사람이 월남을 침략하였다』는 뜻이 다시 말하자면 조선과 대만과 월남의 주민이 미국 자신인 듯이 떠들기 좋아 하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아세아와 아프리카인들이 미국을 제처 놓고 저이끼리만 한자리에 모여 앉기로 하였다는 그사실만 하여도 심히 불안 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 아이젠하워와 덜레스는 『선정된 민족』인 앙그로 삭손을 무시하려는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야만』들에게 『저주』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또 한번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고 하여간 미국도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반뚱 4월 14일 발 에이•피 통신은 『현재 당지에서는 반뚱 회의에 제1 많은 대표를 파견하는 국가는 미국이다라는 롱담이 돌고 있다』고 하였다。 동 통신은 계속하여 그 리유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비록 미국이 동 회의 참가 초청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이지만 미국의 신문사와 방송 회사는 70명의 기자를 당지에 파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왜 기자들이 그렇게도 많이? 하고 사람들은 질문 할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문들은 간첩 파괴 분자들도 기자로 가장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 하였다。 기자 뿐만 아니라 미국은 소위 반관 반인적인 옵써버들도 파견 하였다。

박승히 삽화

이들의 목적은 반뚱에서 미국식 생활양식을 선전하고 친 서방적인 일부 대표들에게 알력을 가하여 회의를 분렬시키고 파탄 시키려는 것이 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미국의 신문 통신들은 사실에야 부합되건 말건 덮어 놓고 기정된 저들의 방향대로 수두룩한 허위 보도들을 퍼뜨렸다。

『주은래 네루 간의 균렬, 반뚱 회의 분위기 돌연 긴장!』 (4월 18일발 아이•엔•에쓰 통신) 『반뚱 회의 고착 상태에 함입 공산 식민주의 위요코 격론 전개』 (4월 22일발 에이•피•통신) 등 바로 이러한 선동적인 표제의 기사들이 미국의 선전 기관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또 일부의 미국 『대표』들은 암해 공작을 위하여 례하면 홍콩과 반뚱과 같은 곳에 파견되였었다는 것도 이미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4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미국의 이 어용 선전 기관들도 반뚱 회의가 공동 콤뮤니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성과 뒤에 끝났다는 사실을 보도 하지 않을수 없었다。

력사의 힘은 위대하다。

어젯날 통굶은 대통을 비뜨슴히 물고 아세아와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어린애 팔 비틀듯이 대하여 아세아와 아프리카 땅을 제 천지 처럼 싸다니든 미국의 『신사』들이 였다。

오늘날 처치는 달라졌다。광명이 아세아와 아프리카에 비치기 시작했다。 미국의 소위 『문명』한 『신사』들은 이제 원자탄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둠을 타고 뒷면으로 돌아가 보는 바와 같이 쥐새끼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였다。

세계 정복의 망상이 깨어지는 바람에 오늘 아이젠하워 덜레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지배층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일인 것만큼 우리는 그들의 내부일에 간섭하지 말기로 하자!

(전 동 래)

원자전쟁을 반대한다!

편집 위원 박 무 백광호 서만일 신불출 리갑기 정현웅 장진광(책임주필)
발행소 활살 (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소 국립 종합 인쇄소
인쇄 1955. 5. 1. 발행 1955. 5.15.
ㄱ…30084 값 (90 원)

자멸에서 구원
자기비판
관료주의 보따리
자본주의 사상
장진광 그림